

도드람양돈농협

도드람엘피씨공사, '2020년도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도축장' 선정

- 2011년 전국 '1호 거점도축장' 지정 이후 철저한 시설 관리로 매년 우수한 실적 거둬

한돈 대표 브랜드 도드람(조합장 박광욱)의 자회사인 도드람엘피씨공사가 '2020년도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도축장'으로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연맹

주관으로 실시되는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도축장'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전국 도축장을 대상으로 HACCP 운용수준 평가를 진행해 수상업체를 선정한다.

도드람엘피씨공사는 인프라 구축, 선행요건프로그램, HACCP 관리 및 기타 미생물 검사, 현장 평가 등 까다로운 평가 과정을 거쳐 최종 평가위원회에서 우수 도축장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이상일 도드람엘피씨공사 대표이사는 "깨끗하고 안전한 지육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임직원들에게 수상의 영광을 돌린다"며 "더욱 강화된 HACCP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위생프로그램 관리로 지육을 생산해 축산농가 이익 증대 및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도드람엘피씨공사는 2018년에도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도축장'에 선정되어 수상한 바 있으며, 2011년 전국 '1호 거점도축장'으로 지정된 이후 매년 거점도축장 평가에서 최우수, 우수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도드람한돈, '2020년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3년 연속 대상 수상 및 '명품 브랜드 인증' 획득

- 최고의 품질관리 통해 소비자가 믿고 찾는 한돈 분야 최고의 브랜드로 우뚝

한돈 대표 브랜드 도드람이 '2020년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명품 브랜드 인증을 받아 장관 인증서 및 인센티브 10억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2020년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며, (사)소비자시민모임으로부터 우수 축산물 브랜드로 인증받은 경영체 중 우수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한다. 특히 '명품 브랜드 인증'은 우수 축산물 브랜드 대상을 3회 이상 수상한 경영체 중 우수 경영체만 받을 수 있는 값진 상이다.

도드람은 품질, 위생, 안전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15년째 소시모 주최의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을 획득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3년 연속 대상(국무총리상) 수상에 이어 올해 '명품 브랜드 인증'을 받아 한돈 분야 최고의 브랜드로 인정받았다.

도드람 박광욱 조합장은 "명품 브랜드 인증으로 도드람한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기쁘다"면서 "앞으로



도 한돈산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식품의 위생과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즘 시대에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최고 품질의 명품 한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드람은 소비자가 직접 투표하는 한국소비자포럼 '2020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돈육부분 1위를 차지하는 등 다양한 수상 실적을 통해 품질을 인정받으며, 명실상부 국내 돈육업계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제주양돈농협

제주양돈농협 청정배합사료공장, 제주도 내 최초 사료판매 10만 톤 초과 달성

– 지속적인 사료 품질 개선 노력 전개로 도내 최고의 사료로 자리매김



제주양돈농협(조합장 고권진)은 2009년 청정배합사료공장 개장 이후 처음으로 사료판매 10만 톤을 초과 달성하였다. 이는 제주도 내 업계 최초의 달성이라 명실공히 최고의 사료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이 국제 곡물 가격 및 환율 인상으로 이어져 제주양돈농협은 불가피하게 사료 판매 단가를 인상하기도 하였다. 더군다나 얼어붙은 소비시장으로 인해 돈가 하락 등 양돈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이에 제주양돈농협 청정배합사료공장은 조금이나마 도내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덜고자 지난해 약 29억 원 상당의 가축분뇨처리지원비 및 이용장려금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냄새 저감을 위한 미생물제 첨가, 돼지의 기호성을 높이기 위한 첨가제 변경 등 사료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많은 난관 속에서도 양돈농가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꾸준한 사료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있었기에 10만톤 달성이 가능했다.

고권진 조합장은 “어려울 때일수록 조합원과 임직원이 하나 되어 양돈농가의 고통을 분담하고, 협동조합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조합 사료에 대한 아낌없는 신뢰를 보여준 조합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도내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